

“오월광주 현장 보며 감동”

■ 상록전시관 찾은 日 평론가 야마구찌 이즈미씨
홍성담 ‘야스쿠니 미망’ 연작에 전율
해마다 광주 찾아 5·18 참배 등 활동

“2005년 서울서 홍성담을 처음 만났는데 전통 탕화, 민화를 바탕으로 한국적 미학을 민중미술로 승화시킨 작품에 감동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술이고, 미술이구나하고 생각했죠. 이번 ‘야스쿠니 미망’연작을 보고도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도 80년 5월항쟁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 더욱 감동적이었구요.”

19일 5·18 30주년 기념 특별전 ‘흰빛 검은 물’전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을 찾은 야마구찌 이즈미(55)씨는 5·18 현장 광주에서 느낀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다.

야마구찌씨는 일본과 영국을 오가

며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이자 문화평론가로 일본의 현역 평론가 중 가장 원작적인 인물로 알려져있다.

대학생이던 시절 처음 TV를 통해 5·18 소식을 접하고 ‘전율’같은 것을 느꼈다는 야마구찌씨는 이를 계기로 광주에 대한 연모의 정을 풀어오다 1994년부터 매년 5월 광주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3박4일 광주방문 기간에도 옛전남도청앞에서 열린 전야제에 참여했고, 5·18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등 광주 오월을 기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광주의 예술가들과 함께 현장을 체험했다.

야마구찌씨는 홍성담씨처럼 1980년 광주 5월을 관화로 작업했으며 광주비엔날레에도 참여한 적 있는 일본의 진보적인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89)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도미야마씨 역시 광주의 5월을 다룬 작품을 새겼으며 종군위안부나 천황제에 대한 작업을 해오고 있으나 홍씨의 작업과는 문제제기 방식이나 표현 양식, 그 근본 배경도 달라요.”

일본의 경우 모든 사물과 의식속에 천황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상징화하거나 풍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반면 ‘야스쿠니 미망’ 연작을 보면, 홍씨는 군국주의 피해자로서 이에 저항할 당당한 권리를 갖고 있고 광주 5월항쟁이라는 민족적 기반과 경험이 토대가되어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 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야스쿠니로 대변되는 군국주의가 아시아 주변국에 고난을 준 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과



19일 광주를 찾은 일본 문화비평가 야마구찌씨가 홍성담씨의 ‘야스쿠니의 미망’ 연작 앞에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야마구찌씨는 매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을 추념하는 ‘평화의 날’에 ‘첼로 퍼포먼스’를 하는 행위예술가이기도 하다.

그는 1994년 페리스대학 동아리에 서 원폭 후 10년뒤에 백혈병으로 죽은 소년에 대한 그림책 ‘종이학 1천마리’를 만들었던 것이 계기가되어 매년 평화공원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다룬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와 감정이 뒤섞여 있는 내용이라고 소개

했다. 이 퍼포먼스를 가지고 수년간 미국 투어를 가진 적도 있는데 전쟁의 피해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에 대한 책임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야마구찌씨는 한국의 민중미술 관련 “1세대 작가인 홍성담을 비롯해 많은 젊은 작가들이 그 맥을 이어갈것이므로 미래가 밝다”며 “일본작가들도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5·18, 미래 위한 증언은 모두의 의무”

천주교 광주대교구 주최·광주일보 후원 ‘5·18 3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광주가톨릭대학교서 열려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가 주최한 5·18 3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가 지난 17일 오후 광주가톨릭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와 광주평화방송이 후원한 이날 학술발표회에는 5·18 30주년을 맞아 5·18의 소중한 정신과 유산을 되새겨보고 그 의미와 지향점을 교회적 차원에서 영성적으로 새롭게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박흥기(구례상당 주임) 신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제민 신부(마산교구 창원반송 성당)가 ‘왜 5·18을 기억하는가’, 김상봉 교수(전남대 철학과)는 ‘5·18,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제민 신부는 발제를 통해 “우리는 5·18을 단순히 조국에 대한 헌신을 뛰어넘어, 한 국가 내지는 민족의 틀을 벗어나 보편성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폭을 넓혀 인식할 필요가 있



5·18 3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가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는 주제로 지난 17일 오후 2시 광주가톨릭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제공〉

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교수도 “5·18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천주교 박해에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했던 모든 선량하고 고귀한 영혼들이 피눈물로 묻고 또 물었던 물음이었을 것”이라며 “80년 5월 빛고를 역사 역시 그 대답을 바르게 듣는 것, 그리고 미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 모

두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제 후에는 한상봉(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진호(제3시대 그리스도연구원 연구실장)씨와 이상갑(변호사), 김양래(전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씨의 논평과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철학 나무에 예술 꽃 피다

26일까지 ‘무돌아트’
20일 일일 솔집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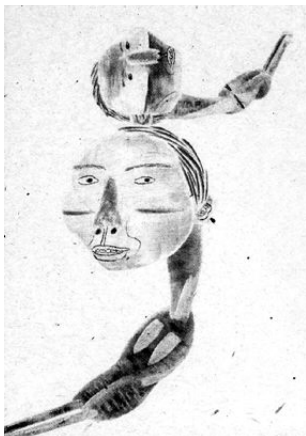
‘철학과 예술이 만나다.’ 철학은 작곡가, 화가에게 어떤 예술적 영감을 주었을까. 자신에게 영감을 준 철학자의 메시지와 철학자의 삶을 파티 방식으로 꾸민 전시회가 마련됐다.

무돌아트컴퍼니가 기획한 ‘철학나무에 예술 꽃 피다’가 20일~26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돌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회와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행사로 특히 20일(오후 7시~12시까지)은 갤러리가 ‘일일 솔집’으로 변신한다.

작곡가 김현옥씨는 이날 피아노 연주를 들려준다. 또 뷔페식 퓨전 비빔밥과 오이소주, 엠플루트 디자인 카테일, 색과 이미지 카테일 등 작가들이 직접 만들어 주는 카테일이 제공된다.

주홍씨는 붓다와 니체, 비트겐슈타인까지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인물들의 표정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나는 흙이다. 이 흙안에 거하



박수만 작 ‘잃어버린 순수’

여 행복하여라’는 모티프를 인물화로 표현한 여개출 임의진, 별빛 쏟아지는 한겨울 마을 풍경을 통해 ‘세상의 모든 철학자 예술가, 떠돌이 여행자들이 흘린 눈물은 아마 별이 되었을 거’라는 마음을 풀어낸 한희원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정선휘씨는 ‘어디에서 삶을 영위하던지 마음 속에 가득 자리하고 있는 곳은 자연이다’는 노승의 문구를 표현한 풍경을 선보이며 정운하·박수만·손봉채씨도 작품을 내놓았다. 문의 062-234-27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HOLIC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MEGABOX

1관 하녀 (18세) **최고급관**

2관 토빈 후드 (15세)

3관 하녀 (18세)

4관 아이언맨2 (12세)

5관 드래곤볼이기(3D)(전세)

6관 토빈 후드(15세시) (15세)

7관 내 짱패같은 애인(15세)

8관 나이트메어 (18세)

9관 하녀 (18세)

• 호남주치단위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려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럼업학국사거리 ☎ 1544-0600

컬럼버스시네마

1관 내 짱패같은 애인 (15세)

2관 구르물 버서난 달처럼 (15세)

3관 토빈 후드 (15세)

4관 토빈 후드 (15세)

5관 드래곤볼이기3D(전세)/시 (15세)

6관 드래곤볼이기3D(전세)

7관 아이언맨2 (12세)

8관 나이트메어 (18세)

9관 하녀 (18세)

10관 하녀 (18세)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1588-7941 상담원연결 방방-(1번 or 2번)→0번

cinus색깔있는 영화산책 시너스

1관 나이트메어 (18세)

2관 토빈 후드 (15세)

3관 하녀 (18세)

4관 시 (15세)

5관 아이언맨2 (12세)

6관 내 짱패같은 애인 (15세)

7관 드래곤볼이기3D(자막)(전세)

8관 드래곤볼이기3D(자막)(전세)

9관 나이트메어 (18세)

10관 토빈 후드 (15세)

세너스 전대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이마트몰신사 할인혜택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primus영화보는 즐거움이 있는 곳 제일극장

1관 하녀 (18세)

2관 아이언맨2 (12세)

3관 내 짱패같은 애인 (15세)

4관 나이트메어 (18세)

5관 토빈 후드 (15세)

6관 드래곤볼이기(3D)(전세)

7관 구르물 버서난 달처럼 (15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호너타워차량 -당, 입장과 구매 고려에 한함)

새로운 기록 • www.primuscinema.com / www.jellicinema.co.kr
종강로 3가 ☎ ARS 전화예매 ☎ 227-1960